

지속성 복막투석 환자에서 내장성 비만 발생에 대한 단면 연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영수 · 김영옥 · 윤선애 · 송호철 · 신석준 · 김형욱 · 김용수

Visceral Obesity in CAPD Patients

Young Soo Kim, Young Ok Kim, Sun Ae Yoon, Ho Cheol Song, Seok Joon Shin, Hyung Wook Kim, Yong Soo Ki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edical College, Seoul, Korea

목 적 : 복막투석 환자에서 하루 섭취된 총 칼로리의 20%가 투석액으로부터 자연적으로 흡수되어, 잉여 영양분에 의한 고혈당, 고인슐린혈증, 고지혈증, 복부 지방 증가 등의 합병증을 초래하게 된다. 일반인에서 비만의 유병률은 30%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까지 복막투석 환자의 비만의 유병률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복막투석 환자들에게 복부 비만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Abdominal fat CT를 시행하여, visceral obesity의 유병률과 이에 관련된 유발 인자를 단면 연구로 분석하였다.

방 법 :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가톨릭의대 의정부성모병원 신장내과 외래에서 복막투석 중인 95명 중 fat CT를 시행한 7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내장성 지방과 피하지방의 비율이 0.4 이상인 경우, 또는 내장성 지방 면적이 100 cm² 이상인 경우를 내장성 비만으로 정의 하였고, CT 시행 시점에서의 복막투석 기간, 신체질량지수 (BMI), 혈액 및 생화학 검사 결과, 주당 KT/V 및 크레아티닌 청소율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 79명의 대상 환자 중 남자는 45명 (57%)이었고, 평균 연령은 53.5±13.9세, 평균 체중은 64.3±11.5 kg이었고, 평균 BMI는 24.1±3.1 (kg/m²)이었다. 기저 신질환은 당뇨병 37명 (46.8%), 고혈압 32명 (40.5%), 만성 사구체신염 8명 (10.1%), 기타 2명 (2.6%)이었다. 79명의 대상 환자 중 내장성 비만으로 진단된 환자는 67명으로 84.8%를 차지하였다. 대상 환자의 내장성 지방/ 피하지방의 평균 비는 0.79±0.44이었고, 내장성 지방의 평균 면적은 107.46±54.6 cm²이었다. 내장성 비만의 발생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발생 빈도가 높았고 (p=0.000), 신체질량지수와 당뇨병 유무, 투석 기간, 고령, 고지혈증과 관련이 없었다.

결 론 : 추후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복막투석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내장성 비만의 발생 빈도가 높으므로, 외래에서 내장성 비만의 발생에 대비한 주의 깊은 관찰과 함께, 식이요법을 포함한 적극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